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추석 차례상, 이제 직거래 장터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농식품 물가안정과 고유가와 농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특히 축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8.25~9.12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하여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 ※ 16개품목 :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밥,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 물량, 정부비축품의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가격안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평소보다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추석기간 중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

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고유가와 사료·농자재 가격의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AI발생과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도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반장: 식품산업본부장)’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오리 간염백신 개발 연구결과 국제바이러스학회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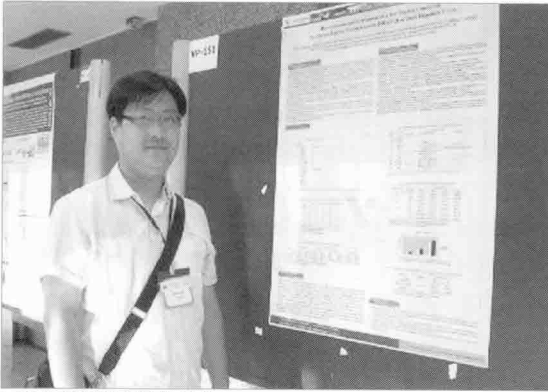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8월 10일~15일에 개최된 제 14차 국제바이러스학회(장소: 터키 이스탄불)에서 “최근 국내 유행 오리 간염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오리 간염은 2001년부터 국내에서 새로운 변이주에 의해 간염이 발생되었으며, 2003년 이후부터 이러한 변이주는 지속적으로 오리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발표(소속: 조류질병과 김민철 박사)된 연



▶ 2008년 국제바이러스학회 개최장면



▶오리 간염백신 연구성과 발표

구결과는 최근 번이주에 의해 국내에서 발생되고 문제시되는 오리 간염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방어능, 안전성 및 야외감염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양창범 동물위생연구소장은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우수한 연구성과 발표로 인하여 검역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 연구결과는 작년 10월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07-0104736)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산업체와 공동으로 국내여건을 고려한 백신생산과 공급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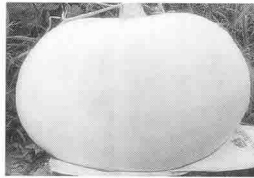
가축분뇨로 큰 대형 호박 재배 성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신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액비로 만든 후 시범적으로 전통호박을 재배한 결과, 100kg이 넘는 호박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가축사료용으로 개발된 이 호박은 4월 8일 실내 모판에 파종하여 5월 2일 노지에 옮겨 심고 8월 13일 수확



▶가축분뇨로 큰 대형 호박



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소똥을 밑거름으로 키운 반면 올해는 소똥을 밑거름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에

서 개발한 SCB 액비를 웃거름으로 준 결과 전년도 76kg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호박을 키울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정의수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여름철 연일 30℃를 넘을 뿐만 아니라 장마가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kg 이상의 호박재배가 어렵지만, 잘 발효된 가축분과 돈분액비 시용 및 축적된 재배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호박재배가 가능하다고, 내년에는 더욱 크게 키워보이겠다”고 말했다.

